

20220223\_간호법 대국민토론회



# 보건의료소비자를 위한 간호법 제정

## - 간호법 제정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시사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02-706-1372 [consumer@can.or.kr](mailto:consumer@can.or.kr)

# 간호법 제정에 대한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설문조사 배경

- 의료인이 간호사와 간호관련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개발, 법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 과제임.
- 돌봄이 사적영역의 개인책임에서 점차 공공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간호 지식과 기술을 기반한 간호전문서비스, 간호지원, 영양, 돌봄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간호인력의 역할이 많아지게 될 것임
- 과거 의료기관 중심의 인력 양성과 법체계에서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간호인력 관련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인력의 전문성 다양성, 독립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음.
- 지역간의 이익 다툼에 머물지 않고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간호법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반소비자와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목적의 설문조사를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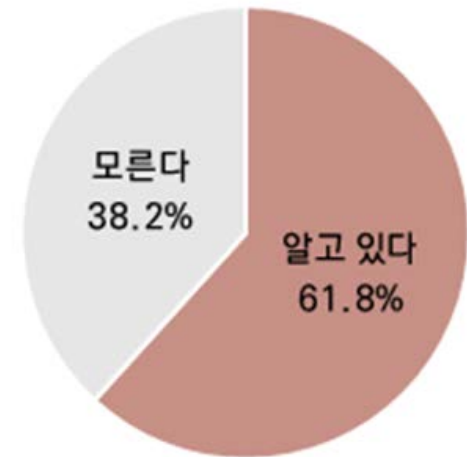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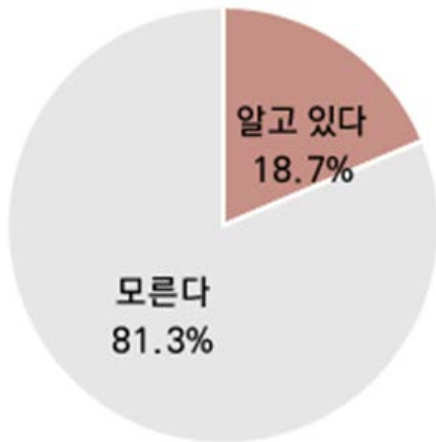
# 설문조사 개요

구분	조사 설계 내용																
조사대상	○ 전국 20세 이상 일반 소비자 <b>1,500명</b> (허용오차 : ±2.53%)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 1차 : 2021년 12월 22일 ~ 12월 23일 ○ 2차 : 2022년 2월 3일 ~ 2월 6일																
주요 조사내용	○ 국내 의료법규(간호법)에 대한 인지 및 견해 ○ 간호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현 코로나19 상황과 간호사 부족현상에 대한 견해 ○ 국회 상정 중인 간호법안에 대한 의견 등																
조사대상	○ 보건의료인 <b>301명</b> <table border="1" data-bbox="840 832 1619 932"> <thead> <tr> <th>사례수</th> <th>간호사</th> <th>간호 조무사</th> <th>요양 보호사</th> <th>보건교육 전문가</th> <th>영양사</th> <th>의사</th> <th>약사</th> </tr> </thead> <tbody> <tr> <td>(301)</td> <td>226</td> <td>206</td> <td>120</td> <td>80</td> <td>66</td> <td>53</td> <td>37</td> </tr> </tbody> </table>	사례수	간호사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보건교육 전문가	영양사	의사	약사	(301)	226	206	120	80	66	53	37
사례수	간호사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보건교육 전문가	영양사	의사	약사										
(301)	226	206	120	80	66	53	37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 2021년 12월 22일(수)부터 2021년 12월 23일(목)																
주요 조사내용	○ 국내 의료법규에 대한 인식 및 견해 ○ 간호법안 제정에 대한 의견 ○ 현 코로나19 상황과 간호사 부족현상에 대한 견해 ○ 국회 상정 중인 간호법안에 대한 의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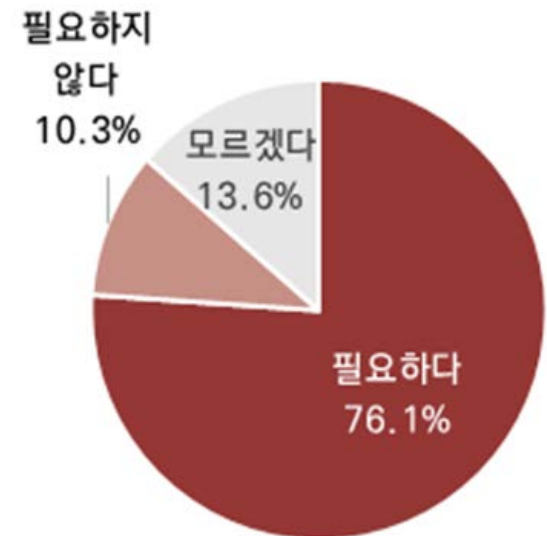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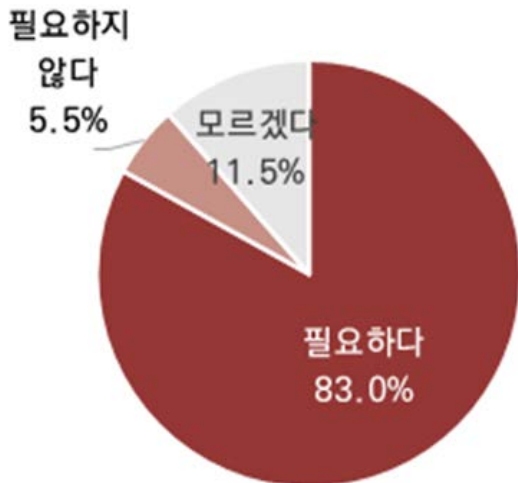
# 간호법 제정에 대한 소비자 및 보건의료인 인식

# 간호법 및 개정움직임에 대한 인식

## ◆ 국내법규 상 '간호법이 없다는 사실'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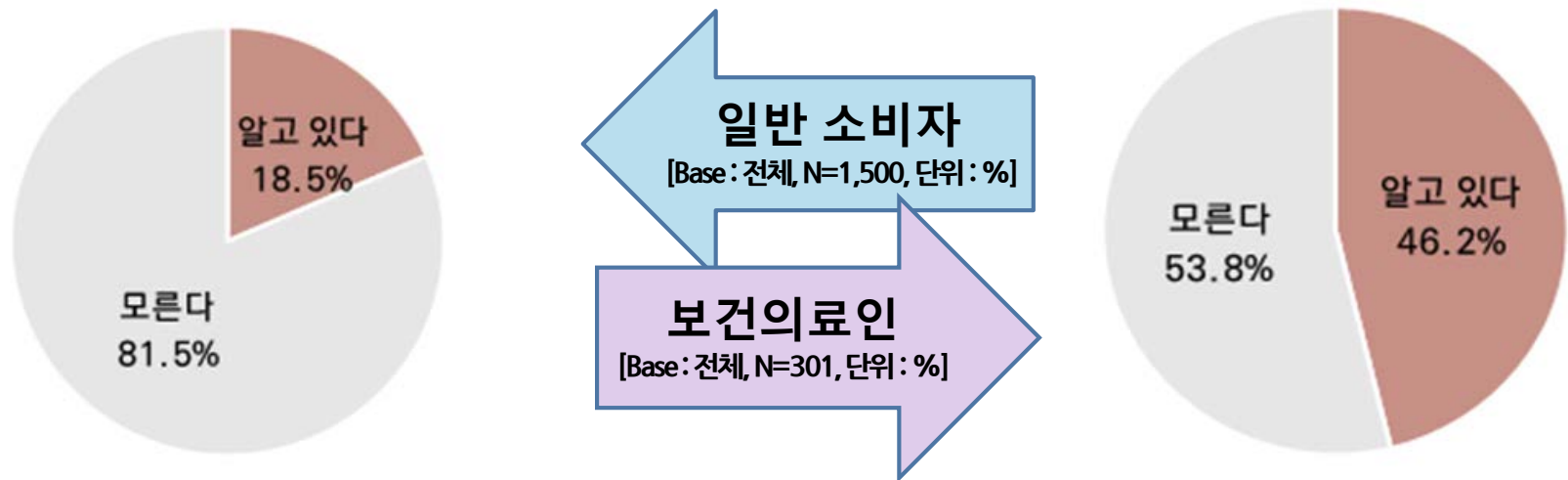


## ◆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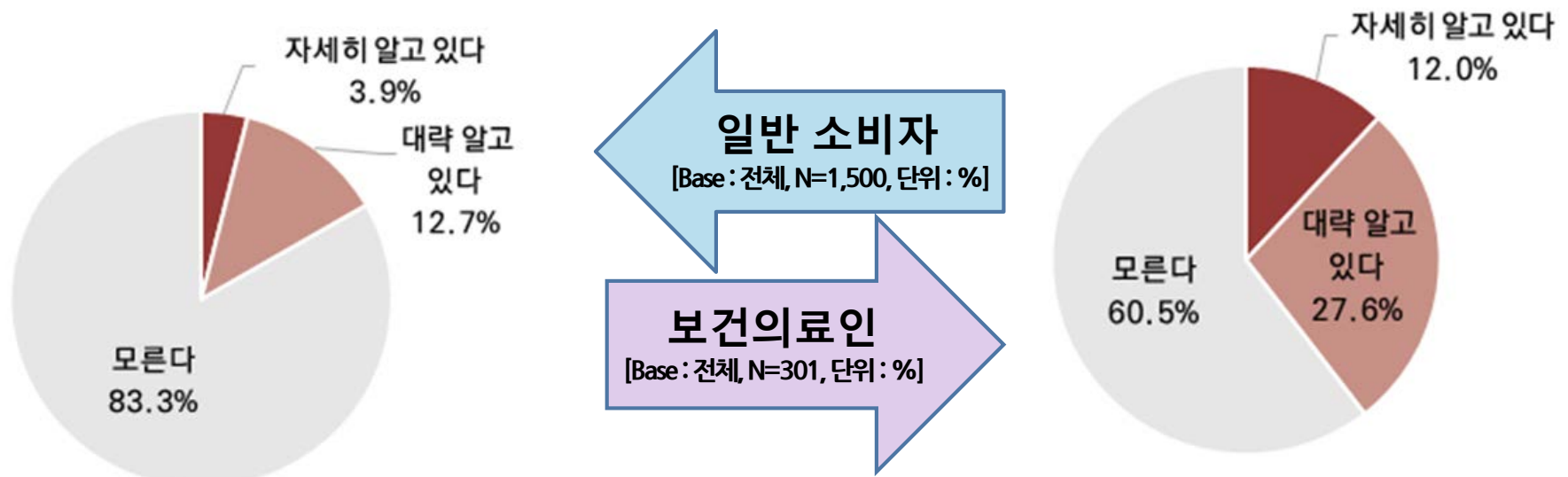


# 간호법 및 개정움직임에 대한 인식

## ◆ 간호법 제정이 국회서 논의되는 사실 인지 여부



## ◆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간호법 주요 내용의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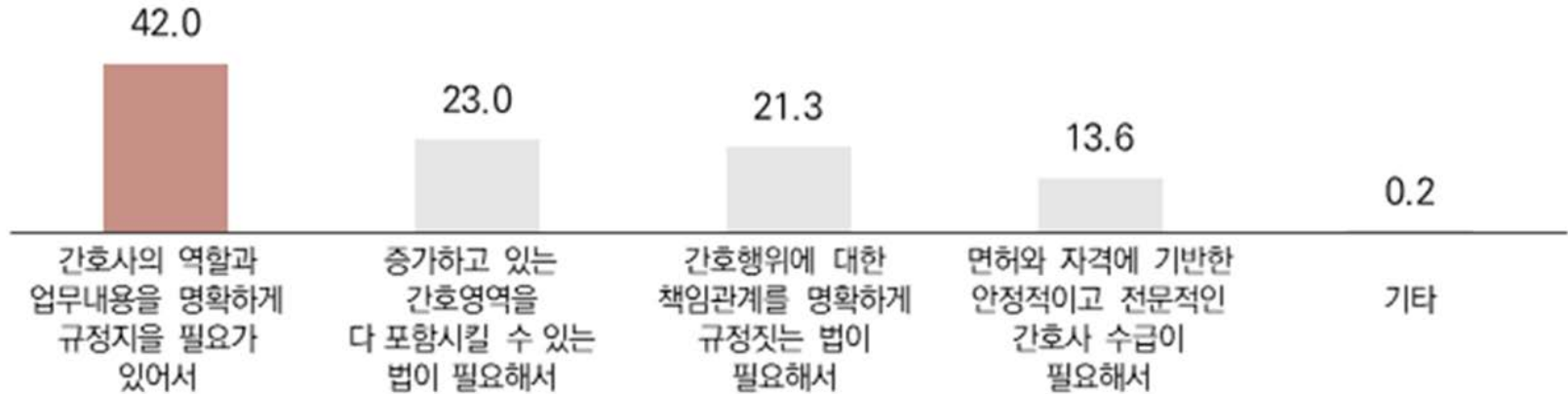
#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간호사 (또는 간호인력)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간호영역의 확장을 포괄하는 법의 필요성을 다음 순서로 인식하였음.
-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의 위상과 독립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가장 높은 기대효과로 평가하였음
- 소비자의 경우 간호사와 간호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이 분명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두번째로 꼽은 반면 (7.72점/10점만점) 보건의료인의 경우 간호행위를 위한 교육 체계가 분명해 질것을 두번째 기대효과로 꼽았음 (7.36점/10점만점)
-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서비스 이용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가장 후순위로 평가를 하여 비용에 대한 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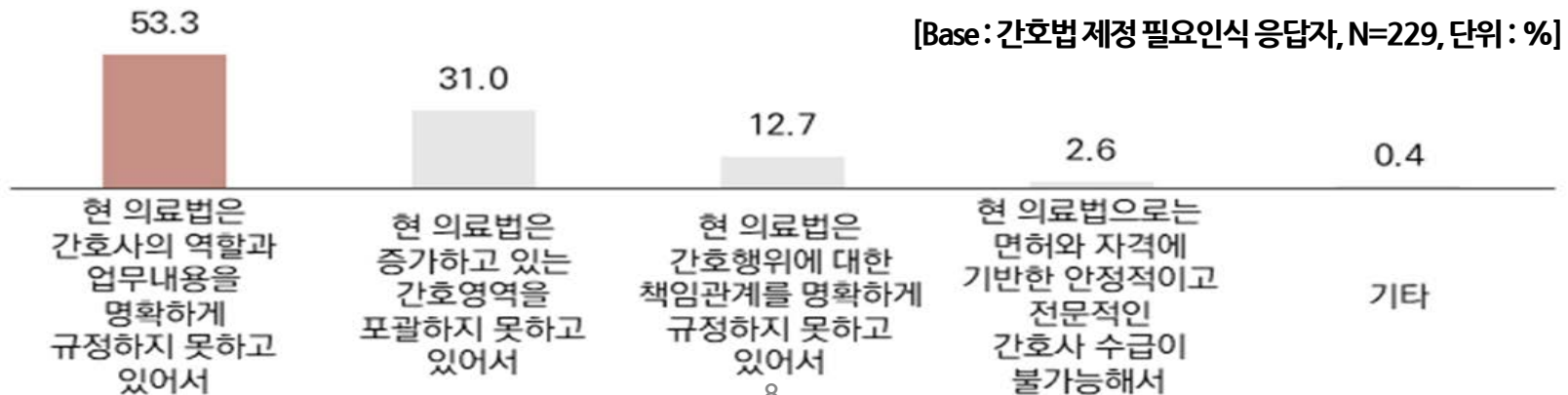
## ◆ 일반 소비자 의견

[Base: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N=1,245, 단위: %]



## ◆ 보건의료인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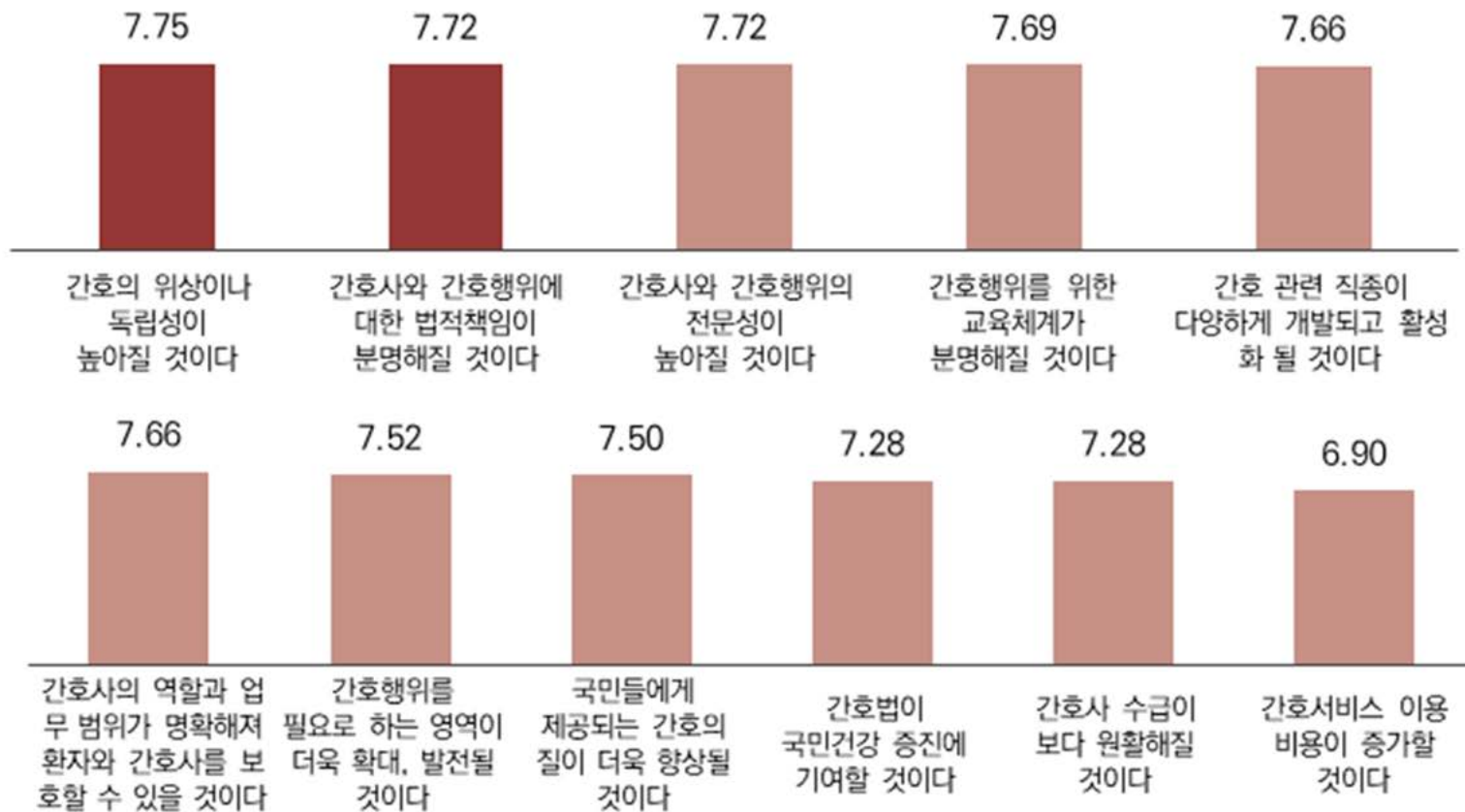
[Base: 간호법 제정 필요인식 응답자, N=229, 단위: %]



#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변화기대

## ◆ 일반 소비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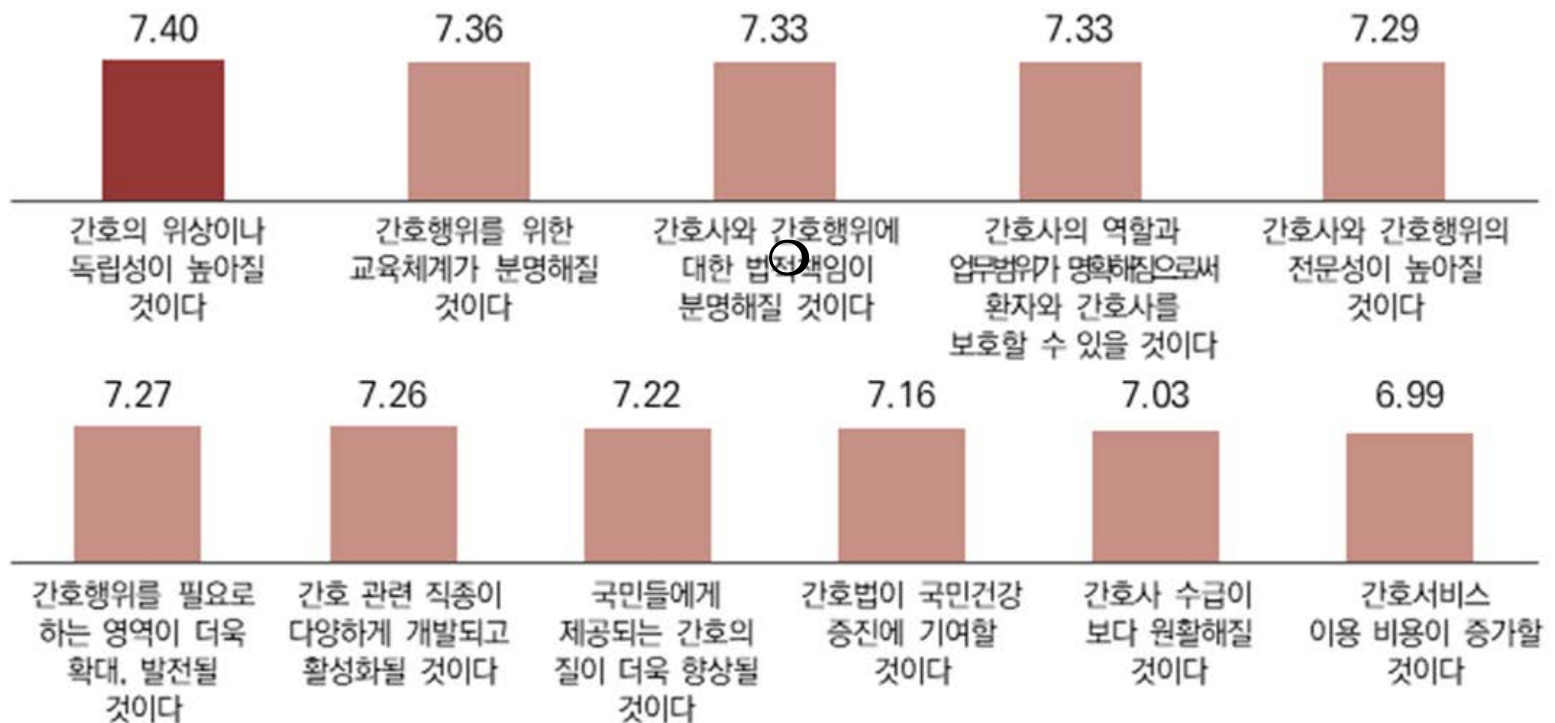
[Base: 전체, N=1,500, 단위: %]



#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변화기대

## ◆ 보건의료인 의견

[Base: 전체, N=301, 단위: %]





#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우선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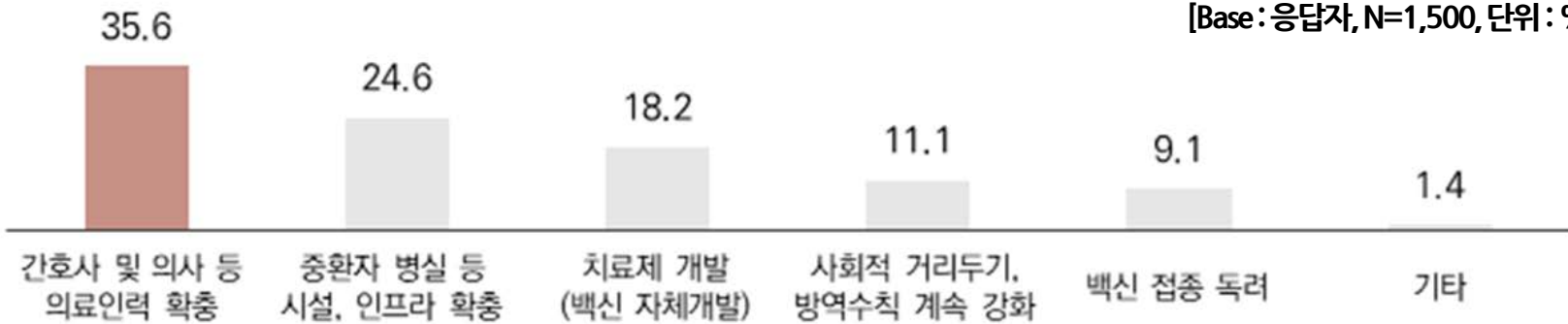
#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로 소비자나 보건의료전문가나 모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을 꼽았음
- 간호인력이 부족한 핵심적인 이유로는 의료환경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처우로 인한 높은 퇴직율을 가장 우선 요인을 꼽았음.
-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근무환경 개선을 가장 우선 과제로 꼽았음. 두번째 과제로는 소비자들은 간호인력의 전문성인정, 존중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보건의료인은 간호대학을 더 늘려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응답함.
-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수급에 도움이 될것인지에 대해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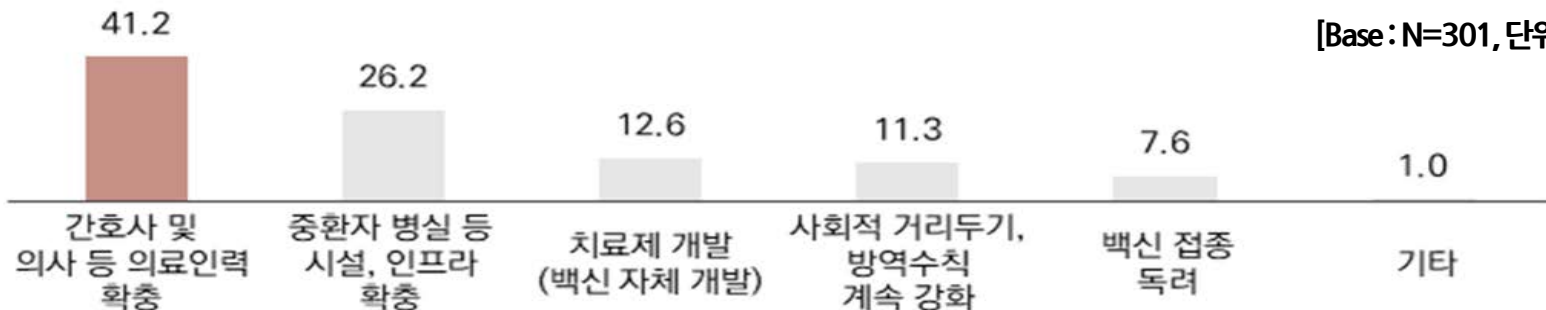
## ◆ 일반 소비자 의견

[Base: 응답자, N=1,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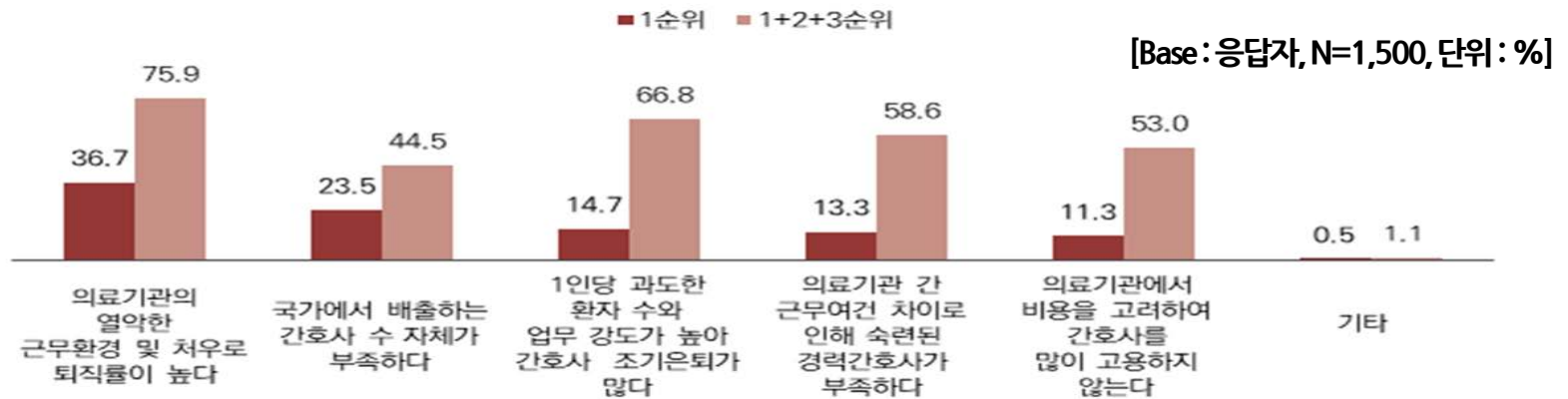
## ◆ 보건의료인 의견

[Base: N=30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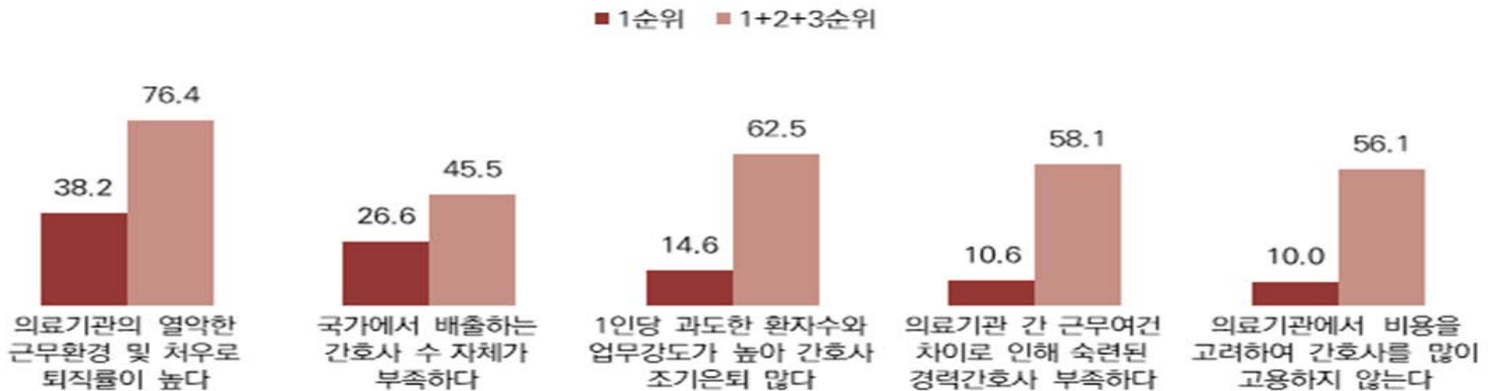
# 간호인력이 부족한 핵심적인 이유

## ◆ 일반 소비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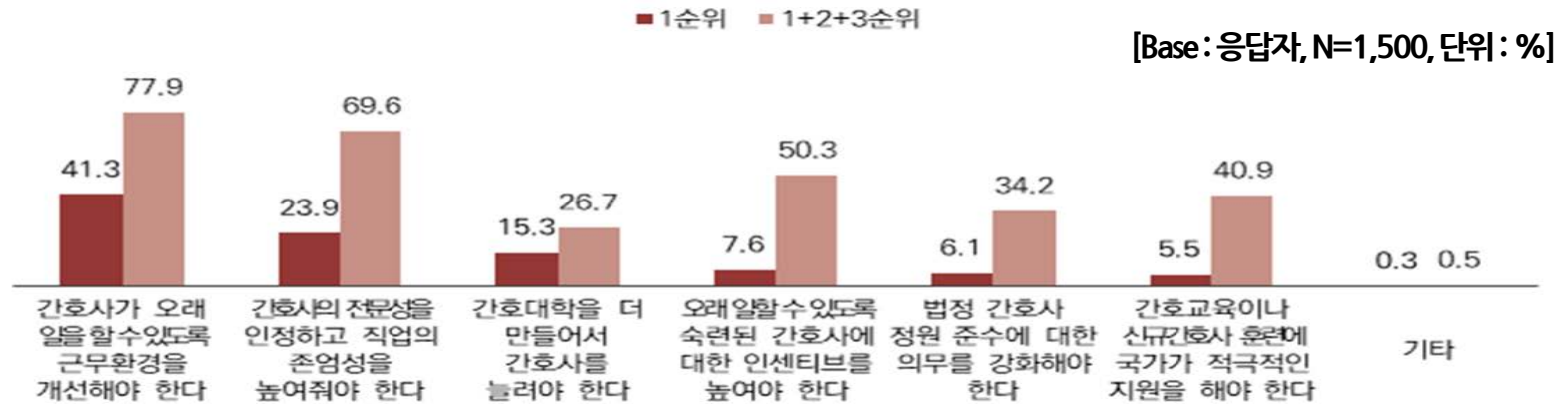
## ◆ 보건의료인 의견

[Base: N=30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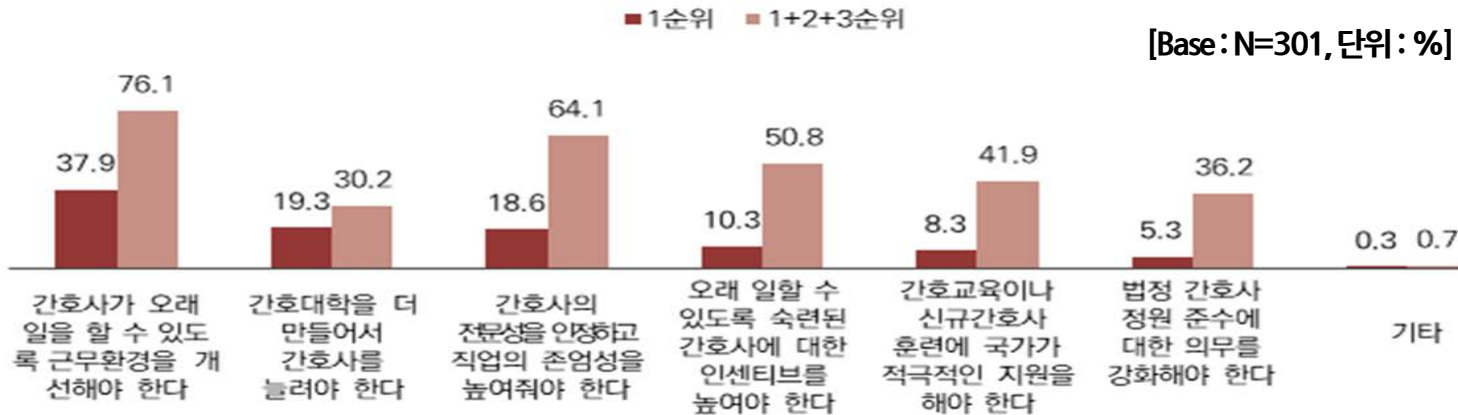


#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

## ◆ 일반 소비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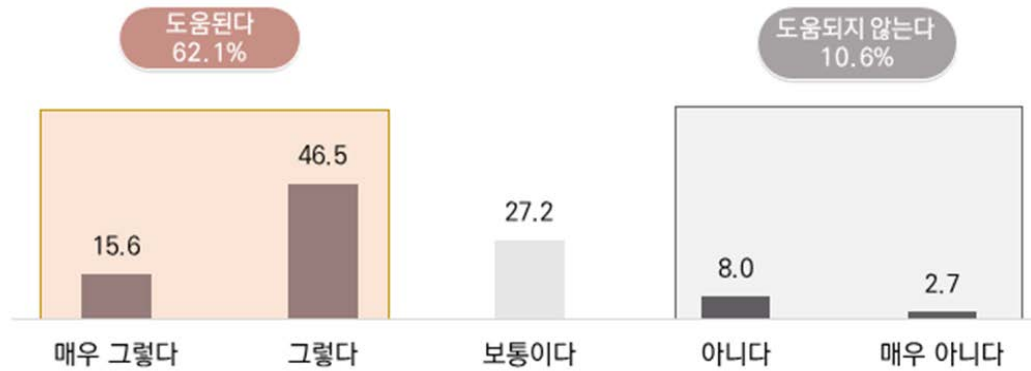


## ◆ 보건의료인 의견



#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수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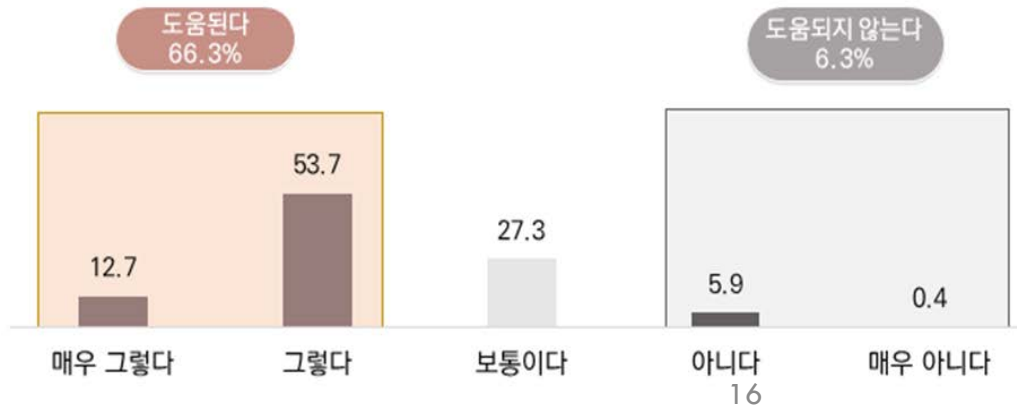
## ◆ 일반 소비자 의견



세: 응답자, N=1,500, 단위: %]

## ◆ 보건의료인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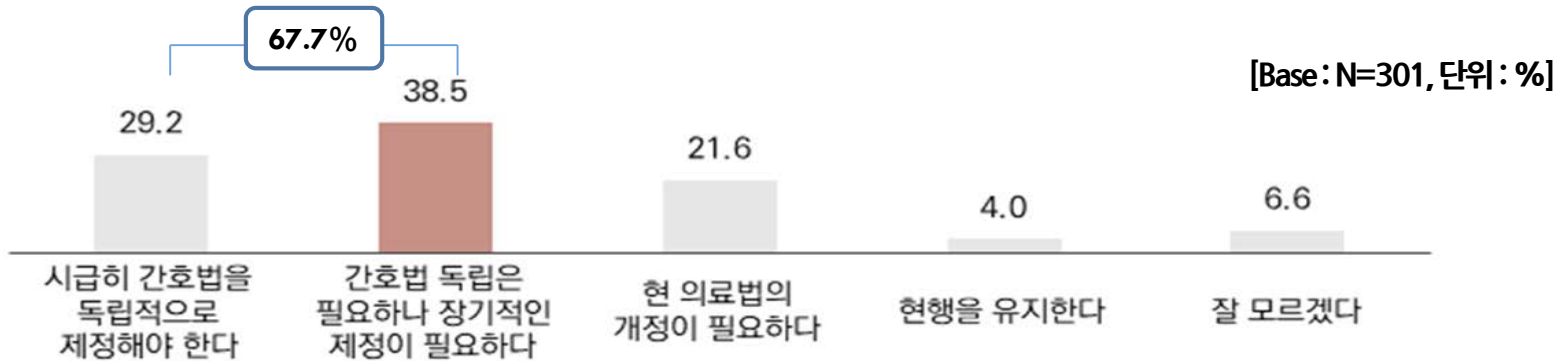
[Base: N=30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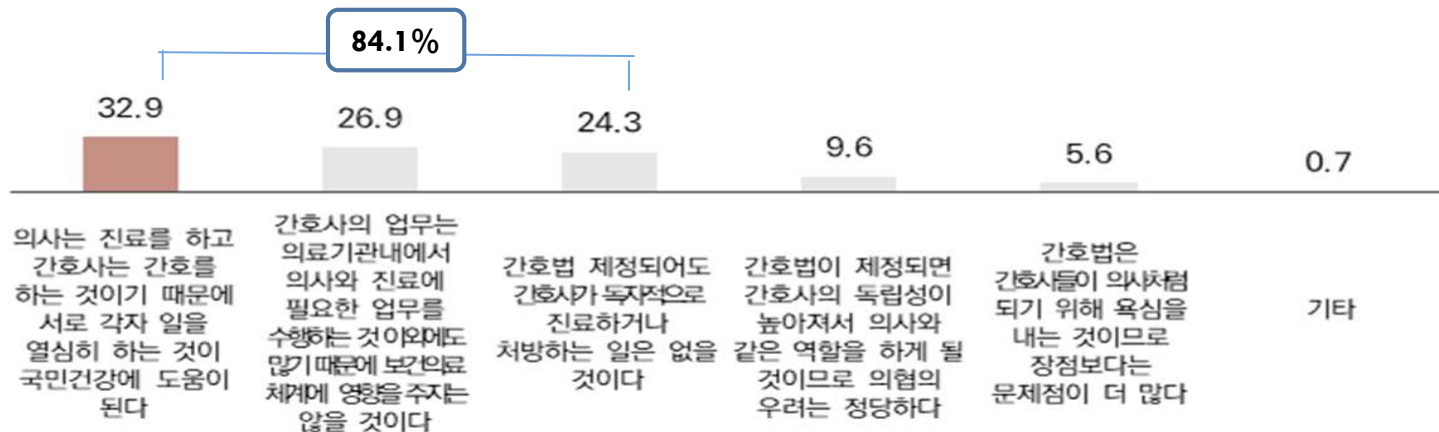
# 간호법 제정 반대의견과 시기에 대한 보건의료인 의견

# 보건의료인의 우려와 시급성에 대한 의견

## ◆ 시급성



## ◆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우려에 대한 생각





# 결론 및 제언

# 보건의료소비자를 위한 간호법 제정이 되려면

- 간호법 제정에 대해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함. 보건의료인은 각 직능간 이해조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좀더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간호법 제정여부, 국회에서의 제정 움직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으며 보건의료인은 알고 있는 경우가 소비자에 비해서 높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이해하는 수준은 아닌것으로 나타나 오해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선동하는 경우 불필요한 우려를 갖게 될 수 있음
- 따라서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인식수준을 높이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코로나 상황 관련하여 인력수급의 중요성,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것을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음.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체계적 양성,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함

# 보건의료소비자를 위한 간호법 제정이 되려면

-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직역간 이견도 존재하나 새로운 법체계를 갖춤으로서 시민사회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간호법으로 발전해야 함
- 간호서비스가 더 이상 의료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한정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사회, 학교, 보건소 등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그 내용도 전문화, 다양화 되고 있으므로 이같은 변화를 교육과정, 면허취득과정, 재교육과정, 인력수급 계획 등에 충분히 담아내는 미래지향적인 간호정책의 출발은 간호법으로 부터 가능함
- 코로나 상황에서 의사인력, 간호인력에 대한 각 나라의 장단기 정책 변화가 활발함. 우리나라는 의사, 간호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로 인해 회피사망률이 보통 이거나 높은 수준임

## ❖ OECD 국가의 의사, 간호 인력 수와 회피가능사망률 수준

\* 주: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 예방 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예방가능사망)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치료가능사망)을 의미함.

\*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1 [데이터파일]을 기초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센터장이 재정리함



# 보건의료소비자를 위한 간호법 제정이 되려면

## ○ 간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2022년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넘어 보건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의 해가 되어야 함. 2020년 이후 감염병 재난 속에서 자의 또는 타의로 억제되었던 의료이용의 증가에 대응하면서 어떠한 보건의료 위기가 오더라도 자원을 동원하고 재정을 조달하며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역량과 거버넌스를 재정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함."*

(발췌 : 강희정, 2022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후 보건의료체계는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급속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고비용구조를 과감히 깨고 일상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재활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새로운 구상을 해야 함.

## ○ 간호법 제정을 근시안적인 직역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태도를 탈피하고 변화하는 시민, 소비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안으면서도 합리성,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함



미래소비자행동

Consumer Action for Future

